

# ‘개발주의서사’의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연민’\*

: 이문구의 『장한몽』과 윤홍길의 『묵시의 바다』를 중심으로

이정숙\*\*

## 차례

1. ‘혐오-연민’의 발생배경과 개발주의 남성성
2. 남성성의 승인방식에 따른 ‘혐오-연민’
3. 풍기문란과 ‘혐오-연민’의 성찰기제
4. 결론

## <국문초록>

개발주의의 남성성이 가부장적 국가(the patriarchal state)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구축되었다고 볼 때, ‘여성혐오’는 개발주의의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남성성의 좌절과 모멸, 그로 인한 자기혐오와 연관된다. 이 글은 개발주의시기에 안보와 경제 개발이라는 두 축을 지탱하는 통치의 주요 ‘인구’로 호명된 남성성을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성혐오’의 함의를 밝힌다.

『장한몽』은 사회구성원들이 조성한 공적영역이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을 답습하면서 동시에 그 폐해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 이 글은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년 가을학술대회의 주제인 “우리 안의 ‘내전’: ‘혐오’/‘공감’의 문화정치와 여성”에서 발표되었던 글을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학술대회에서 좋은 토론을 해주신 연세대 권창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논문의 부족한 점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 서울대 시간강사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작가)의 성적 표현은 젠더적으로 상당히 구속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은 ‘시민-남성’(화이트칼라)이 공적영역으로 진입하는 데서 오는 피로의 해방구 역할을 하는 존재로써 철저히 타자화되는데,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연민’은 이러한 개발주의의 남성성의 한계와 성찰가능성을 동시에 함축한다. 『목시의 바다』는 ‘성-섹슈얼리티’를 풍기문란의 프레임을 통해 다룸으로써 ‘혐오-연민’이 개발주의가 거세한 도덕적인 치부를 들추는 감정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풍기문란은 근대화 논리와 착종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성의 새로운 타자를 낳는다. 이 타자들에 대한 ‘혐오-연민’의 감정에서 ‘혐오’를 탈각시키는 과정이 공적영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남성들이 패배주의와 센터멘털리즘을 극복하게 하는 성찰과 성장임을 말한다는 점에서 『목시의 바다』는 『장한몽』에 비해 진일보한 듯 보인다. 그러나 ‘(여)성-섹슈얼리티’를 ‘자연화’함으로써 여성을 사회로부터 가장 먼 거리로 타자화시키는가 하면 ‘모성애적 사랑’이라는 신화로 여성을 재현함으로써, 젠더구속적인 관념이 좀더 ‘부드러운’ 언어를 통해 오히려 관습화되었음을 드러낸다. 70년대 초반과 후반이라는 시간적 낙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두 작품을 통해 ‘개발주의서사’가 피하는 ‘성장’이 주로 ‘남성성’을 향해 초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여성혐오, ‘혐오-연민’, 정동, ‘개발주의서사’, 성-섹슈얼리티, 남성성, 이문구, 『장한몽』, 윤홍길, 『목시의 바다』

### 1. ‘혐오-연민’의 발생배경과 개발주의 남성성

1975년이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되면서 이 무렵 한국에서도 여성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5년에 크리스찬아카데미는 1965년부터 십년간의 여성학 관련 논의를 모은 『아카데미총서』를 발행했는데,

이 총서의 주요 담론은 남성들로부터 적대시당하는 유능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였다.<sup>1)</sup> 이 논의들이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써 ‘여성멸시사상’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이때의 ‘여성멸시사상’이란 ‘여성혐오’와 다른가? 오늘날 ‘여성혐오’란 ‘여혐’의 생성주체들에 대한 대항감정 및 그들에 대한 대항담론을 함께 생산하는 정동적 수행성을 갖는다. 이에 비하면 1970년대의 ‘여성멸시사상’은 가부장제의 뿌리 깊은 젠더 규범에 대한 소극적인 도전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이라는 말에서 추론되는 공고한 당대적 관습의 벽 및 이에 대한 인지적 감정인 ‘멸시’마저 무시할 수 없다. 우에노 치즈코에 따르면 가부장제 질서가 낳은 성차별적 ‘멸시’는 곧 ‘혐오’의 바탕이다.<sup>2)</sup> 현재적 맥락에서 ‘혐오’가 자신들의 사회적 경계를 침입해 오는 여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장한 감정이라면, ‘여성멸시사상’은 ‘여성혐오’의 직접적인 기원은 아니지만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 ‘여성멸시사상’의 언술 전략이 ‘여권신장’의 문제로 수렴됨으로써 젠더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sup>3)</sup>과는 별개로, 이 아쉬움의 결락을 공론화

1) 강인숙, 「탈 통념시대-풍미하는 여성멸시사상」, 『크리스찬아카데미 총서7』, 크리스찬아카데미, 삼성출판사, 1975, 228쪽. 여성담론은 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전통적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바, 당시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적 이슈는 가족법개정의 문제였고 75년 무렵은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기도 했다.

2) 우에노 치즈코는 misogyny의 번역어인 ‘여성혐오’란 쉬운 말로 ‘여성멸시’이며, 성별 이원제의 젠더 질서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핵이라고 설명한다.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5, 12쪽.) 이에 따르면 ‘여성스러운’ 속성은 남성이 그 지배 대상에 어울리도록 만들어낸 속성이라 해도 무방하다. 여성보호론 역시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다. (우에노 치즈코, 같은 책, 289~290쪽 참조.)

3) 사실 크리스찬아카데미에 수록된 글들은 현실사회의 모순보다는 원론적인 서구이론 소개와 독서문화의 영역에 머물러있는 측면이 있다. 이 총서에 실린 글들 중에는 당대 여성의 성감대론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글(수잔 리돈, 「섹스나 인간이나」, 『크리스찬아카데미 총서7』, 앞의 책, 232~242쪽.) 및 낙태의 자유와 불임의 소재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펼친 글(Lise Fortier, 「불임 및 수태조절법규에 대한 태도」, 같은 책, 243~258쪽.), 동성애와 독신여성의 생활을 다룬 글(Nancy Press Hawley, 「독신과 결혼을 통해 본 여성의 인간관계」, 같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과 연관해서는 두 가지의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시할 사례는 다소 가십의 성격을 띠는데, 남성이 여성을 돈으로 사는 것의 역발상으로써 당시 유한 중년부인이 젊은 남성의 ‘성’을 돈을 주고 샀다는 뉴스가 당시 세간의 시끌별적한 화젯거리였다는 점이다.<sup>4)</sup>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냐 하는 단순하고도 부주의한 공격심이 ‘통속’을 흔들었던 것인데, 이를 통해 ‘성-섹슈얼리티’ 차원에서 젠더불평등은 권력의 문제로써 인식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한편, 도심의 판자촌 부락에 침투해오는 윤락여성의 주거지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는 점은<sup>5)</sup> ‘성-섹슈얼리티’가 매우 조건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두 사례를 통해 추론해 보건데, 타자화되는 여성성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빛나간 데 비해 그 심층에 놓인 것이 남성의 욕망에 대한 ‘승인’이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적인 남성성’ 탄생의 진원지로서 1970년대를 지목한다고 할 때, 개발주의가 구축하고자 한 남성성은 어떤 성격을 띠는가? 염상섭, 정비석, 손창섭 등이 그려낸 전후의 남성성이 ‘대문자 남성’이라는 소설사의 보편적 주체에 대한 젠더허물기에 해당한다면<sup>6)</sup> 개발주의가 정착해 가는 60년대부터 재강화되기 시작한 남성성은 개발주의가 보편화된

은 책, 281~311쪽.) 등 상당히 급진성을 보이는 이론이 포함돼 있고, 그 중에는 ‘모든 남성은 남근승배자’라는 원론적인 표현을 소제목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대의 몇몇 정치적 여성 명사들의 일대기를 소개하거나 ‘성혁명’에 대항하여 여성해방론으로 맞섰던 글로리아 스타이넴을 단지 페미니즘의 스타로써 조명하면서(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글로리아 스타이넴 여사』, 같은 책, 423~429쪽.) ‘읽을거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성담론 전략의 당대적 한계를 엿보게 한다. 저널리즘과 여성엘리트주의 양극단의 교호에 여성담론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4) 강인숙, 앞의 글.

5) 『렌즈에 잡힌 서울의 흙-창녀』, 『경향신문』, 1968. 5. 30. 4쪽. 이 기사는 창신동 송인동 흥인동의 판자촌에 “들끓는” 창녀들의 세태와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당국의 처사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6)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5.

70년대로 근접할수록 좌절과 모멸, 그로 인한 자기혐오와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안보와 경제 개발이라는 두 축을 지탱하는 통치의 주요 ‘인구’로 호명됨으로써 공적영역으로의 진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당대의 남성성을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대 현실 담론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여성멸시’=‘여성혐오’의 구체성이 잘 구축된 장소가 이들 남성의 언어세계를 조명한 서사적 공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성-섹슈얼리티’의 “젠더화된 사용”<sup>7)</sup>을 하나의 지배수단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당대적 남성성이 이문구의 『장한몽』과 윤홍길의 『묵시의 바다』에는 잘 드러난다.

물론 이 글의 목적은 이들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젠더화된 사용방식을 추적하는 데 있지는 않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텍스트는 사회계급의 가장 밑바닥에 ‘창녀’를 배치하고 유폐된 그녀들의 공간으로 찾아들어가는 남성인물들을 다룬 소설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여성은 젠더적인 사유 대상이라기보다 계급적인 대상으로써 재현된다. 즉 하층민 남성을 통해서만 발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녀들은 ‘여성’자신보다 하층민 ‘남성’을 드러내는 존재로써 보다 잘 의미화된다. 70년대 남성작가들이 이들을 ‘혐오’보다 –물론 그 기저에는 ‘혐오’가 깔려 있다– ‘연민’의 정서로 형상화하는 것은 ‘고향을 잃은 자’(=남성)의 삶을 대변하고<sup>8)</sup> 공적 사회의 피로를 위무하는 역할<sup>9)</sup> 그녀들이 맡고

7) 가령 이런 표현에서 이 용어를 캐치할 수 있다. “특정 여성에게 운동화를 바느질 하도록 하는 권력의 젠더화된 사용” 신시아 인로, 김엘리·오미영 역,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바다출판사, 2015, 64쪽.

8) 김병익, 「부정적 세계관과 문학적 조형」,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민음사, 1974, 351쪽.

9) 고은, 「논픽션 1950년대: 그 폐허의 문학 ⑩」, 『세대』, 1972년 4월호에서 고은은 50년대의 폐허로 돌아온 모든 작가와 시민은 “고향도 없고 철학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깊은 상실감에 “심상에 커다란 공동(空洞)이 생겼고” 종삼의 여자만이 그것을 위로해 줄 ‘고향’이자 위로였다고 한다. 손정목은 이에 대해 “솔직히 지금까지 묘사한 글 중에서 가장 잘 된 글”로 고은의 위의 글들을 꼽았다. 손정목, 『한국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표상이나 재현방식을 그대로 문제 삼아서는 ‘여성혐오’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 군사주의의 강압성이 조성하는 성차별적인 위계나 개발주의라는 압도적인 남성성의 세계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타자화된 삶을 살았는가하는 문제 제기는 유의미하지만, 이를 위해 당대의 서사적 현실을 모두 “실존의 재현”<sup>10)</sup>으로써 받아들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고해보아야 한다. ‘표상’이나 ‘재현’을 의심하는 곳에서 ‘혐오’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사의 주체구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은 애초에 부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요컨대 ‘작은’ 주체화조차 남성들에게 입혀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옷인 까닭이다. 1970년대는 왜 이러한 서사를 생산하는가.

그것은 남성화된 기억으로써 산업화를 서사화하고자 하는 기획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다. 당대 여성을 서사화하는 프레임은 그것이 아주 약화된 방식으로 나타날 때조차 당대 남성 작가들의 관념에 내면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일 수 있다, 라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사적 전략이 남성 중심의 개발주의를 긍정하고 시대의 도덕을 운위하는 주체는 남성임을 부추긴다면, 이를 넓은 의미에서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매개 서사(mediated narratives)<sup>11)</sup>일 수 있다고 말이다. 이 글이 명명한 ‘개발주의서사’란 이런 맥락에서 구성된 조어이다. 즉 당대 남성성으로 전유된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에 익숙해진 대중의 취향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내면화한 결과이며, 작가들 또한 무의식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남성의 이

시 60년의 이야기 I』, 한울, 2010, 195쪽.

10) 대부분의 연구는 당대 성적 노동에 종사한 하층민 여성을 재현한 서사를 현실의 등가로 받아들인다. 박정애, 「군사주의와 개발주의하의 여성문학-폐허에서의 생존전략」, 『우리문학연구』 15, 우리문학연구회, 2002. 12, 303쪽.

11) ‘매개 서사’란 한정적인 의미로 제한되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서술적 어법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외포를 한정해보자면 수용자(독자)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텍스트의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의미한다.

해에 기능하는 국가로서 여성억압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적 국가(the patriarchal state)”<sup>12)</sup>의 기획에 암묵적으로 동조한다.

혐오하면서 동시에 연민하는 감정은 그 대상이 갖는 수동성을 최대한 강조했을 때 발생하는 복합감정이다. 스피노자는 대상으로부터 대상의 자체 안에 없는 것을 표상하도록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정이 경멸 (<멸시<혐오)이라고 정의하는데<sup>13)</sup>, 이로부터 ‘혐오’가 어떤 ‘계기적 조건’을 통해 대상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감정임을 알 수 있다. 젠더가 구축 되듯이 혐오가 구축되는 것이다.<sup>14)</sup> 이런 의미에서, 남성성이 낳은 ‘혐오’가 타자화 전략에 의해 구축된 감정이라면, ‘혐오-연민’은 사회적 승인에 의해 이미 타자화된 대상의 신체위에서 재강화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인지적인 감정인 것이다. ‘혐오-연민’은 이러한 역학으로부터 탄생한다.

## 2. 남성성의 승인방식에 따른 ‘혐오-연민’

『장한몽』<sup>15)</sup>은 알려져 있다시피 이문구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편이다. 최근 몇몇 연구<sup>16)</sup>가 있기까지 사실상 도외시되어온 작품인데, 그것은 부도덕한 인물군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장한몽』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7)</sup>

12) 이재경, 『국가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한울아카데미, 2010, 17쪽.

13)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13, 222쪽.

14)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296쪽.

15) 본고는 당대의 사회적 상황을 서사적으로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초판본(이문구, 『장한몽』, 삼성출판사, 1973)을 저본으로 삼는다. 단 필요한 경우 개정판(이문구, 『장한몽』, 책세상, 1987)을 참고하고자 한다.

16) 임경순, 「내면화된 폭력과 서사의 분열: 이문구의 『장한몽』」, 『상허학보』 25, 2009. 2. 및 오창은, 「1960년대 도시문화와 폐허 이미지-이문구의 『장한몽』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 2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296쪽.

17) 김종철에 따르면 『장한몽』의 인물들은 이문구 문학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정

『장한몽』은 황석영의 『객지』가 그렇듯 남성인물들 중심으로 조성되는 ‘호모소셜’한 영역을 다루며 그 중에서도 묘지이장공사장이라는 그로테스크한 작업장을 배경으로 한다. 『장한몽』이 급작스럽게 조성된 공사판을 통해 ‘공적영역’에 대한 하나의 실험을 보여준다는 점은 매우 특기할만하다. 당대의 ‘개발’이란 모두가 국가주도였다기보다는 국가주도의 개발을 모방하여 사적으로 조성된 공적영역이자, 자본과 임금,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조직과 분리/해소가 ‘제도’와의 상관아래 이루어지는 느슨한 장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영역의 조성 과정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을 답습하는 동시에 그 폐해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묘지이장공사를 벌인 상배 측과 판자촌에 살던 기층민들의 관계도 사적으로 조성된 공적영역의 축소판을 보여준다. 당시 국가적 관리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개발은 자본의 바깥에 있는 기층민들을 점차 배제하는 논리로 진행되었을 뿐 포섭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장한몽』 역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장한몽』은 다소 의아한 구석을 지니는데, 초점화자인 상배가 이 배제행위에 명백히 가담하고 있음에도 응징당하지 않음으로써 기층민을 배제한 개발주의를 비판하려는 내포작가의 목소리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점은 보기에 따라서 미학적인 완결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발주의에 대한 무의식적인 긍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문구는 『장한몽』 이후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대표적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성의 차원에서 『장한몽』이 지닌 이러한 한계는 재고할만하다.

논의에 앞서 ‘사회’의 범주에서나 ‘시민’의 범주에서도 타자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고립되고 소외된 남성들이 공적 영역을 어떻게 조성하고

---

의 사람들’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인물들이며, “노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려던 군상들”이다. 그는 이 때문에 “소설, 나아가서 문학은 무엇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김종철, 『작가의 진실성과 문학적 감동』, 『한국문학의 현단계』, 창작과비평, 1982, 108쪽.



있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공간적 배경인 ‘산50번지’ 야산은 자생적으로 생긴 변두리 묘지터로, 정부수립과 더불어 서대문구로 편입된 말하자면 계획개발지도 못되던 고립된 공간이다.<sup>18)</sup> 더구나 이 묘지 터에는 6·25사변을 겪으면서 무질서하게 암매장된 묘가 많은데, 이곳을 정비하기 위해 벌인 이장공사판에 바로 묘지 주변 이십여 채의 판잣집에 거주하는 막벌이꾼들이 인부로 들어온다. 인부들은 국졸이거나 무학에 어떠한 형태의 공적영역에도 소속되어 본 적이 없는 빈민층이다. 소규모의 묘지이장공사장조차 그들에게는 하나의 ‘사회’로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이 사실에 그들이 뿌듯함을 느낀다는 점이 여러 차례 서술된다. 이들의 중간관리자는 “현장을 쥐고 흔들” “거칠고 드센 사내”(48쪽)인 마길식으로, 그는 파월 기술자였던 경력이 있으나 막걸리 밀주를 팔다가 한국인 기술자의 밀고로 강제추방당한 이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용자측에게 ‘승인’받는 유일한 인물인데, ‘거친’남성만이 묘지이장공사를 수일 내로 끝내도록 할 수 있고 다름 아닌 인부들이 살고 있는 무허가 판잣집의 철거문제를 그가 해결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인부들 중 상필은 개발공사가 한미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양 속여 판잣집 철거를 얼렁뚱땅 해치우려 하는 마가와 상배 측의 동태를 파악하고 인부들의 쟁의를 주도하는데 앞장선다. 그러나 상필 자신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가짜 해골물을 제조해 돈을 마련하는 비양심적인 면모를 지녔다. 그런데 이들을 부리는 감독관인 상배야말로, 대학을 중퇴한 이력으로 서른이 넘은 처지에 병역기피자라는 신분 때문에 무직자신세로 있다가 친구인 신성식의 소개로 묘지이장공사장 일을 경험하게 된 우유부단한 인물에 불과하다. 그는 별 능력도 전망도 없이 부유한 처갓집살이를 하면서, 아내의 해산을 앞두고도 이렇다 할 직업이 없어 자책에 빠져 있는 인물로 사회적 ‘승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구성된 변두리 이장공사장이라는 ‘사회’는 다름 아닌 김상배를 통해 초점화된다.

18) 공간의 상세한 지리적 배경 및 작가의 자전적 경험에 대해서는 오창은, 앞의 글 참고.

김상배를 통해 『장한몽』의 전체 서사를 지배하는 기표가 있다면 그것은 ‘보통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상배의 지속적인 물음이다. 사실 주인공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내면적 성찰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소설적 결론(=주제)에 다다른다면 대개는 독자의 호감을 자아낼 수 있다. 왜냐 하면 아무리 비천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할지라도 그를 형상화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떤 ‘고매성’이 독자의 기대지평을 채워주기 때문이다.<sup>19)</sup> 그러나 『장한몽』에서는 그러한 고매성을 지닌 인물을 발견하기 어렵다. 상배나 마길식 혹은 상필에 비해 줌도독질에 강간미수, 살인미수, 전쟁기의 살인경험 등으로 윤리감각을 뚜렷이 지니지는 못하지만 배고픔을 일상적으로 겪는 빈민들의 생생한 삶의 이력이 차라리 감동적일 수 있다. “시련, 고통, 가난은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만드는 커다란 유혹들”<sup>20)</sup>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각종 (살인, 강간)‘미수’들은 최소한 인간의 밑바닥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배는 흔히 있을 법한 ‘속물’이며, 낙오자라는 자의식으로 괴로움을 겪는 인물인데 서술자는 그가 좌익집안으로 낙인찍혀서 겪은 어린시절의 상처로 인해 손해 볼 짓은 하지 않는 소심한 어른이 되었고 그 맥락에서 병역기피를 자행했다고 그를 감싸는 듯 보인다. 상배는 고아들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는 도덕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공사의 이권을 지키자는 마길식의 속임수에 “우정”을 느끼고 그의 제안을 하나의 “신뢰”로써 받아들인다. 공적인 ‘호모소셜’로의 진입이 막힌 자들이 구성된 임시영역임에도 이들은 ‘남성간의 승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체도에 대한 인부들의 무지를 이용하고 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발각됨으로써 ‘폭력’<sup>21)</sup>이라는 응징이 가해지지만, 이조차 마길식만이 대상이 된 점은 『장한몽』의 한계이다. 이 때문에 상배는 주인공임에도 긍정할 수 없게

19) “읽기란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맺어진 고매성의 협약이다.” 사르트르, 정명환 역,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80쪽.

20) 에티엔 발리바르, 서관모·최원 역, 『대중들의 공포』, 비, 2007, 138쪽.

21) 임경순, 앞의 글.

만드는 사실상 가장 불유쾌한 인물 유형이다.

그렇다면 과연 ‘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배의 성찰은 세상을 이롭게 할 가치를 생산하는가? 결말에서 상배는 ‘보통사람’의 감각이란 흙의 원천에 부합하는 삶을 깨닫는데 그 결정적 계기가 미실을 통해서 라는 점은 중요하다. 최미실은 『장한몽』의 처음과 대미를 담당하는 상징적 존재로, 공사장의 인부들에게는 묘지를 배회하는 반미치광이이거나 순애보를 간직한 성녀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진다. 상배는 성욕이 매우 강한 남성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데, 이 사실은 텍스트의 정신분석을 요할 만큼 뜬금없이 분출된다. <홀러집>의 미스강이 ‘창녀’로서 상배의 성욕을 실제로 채워주는 대상이라면 미실은 여성에 대한 욕망을 지속적으로 구가하게 만드는 일종의 ‘성녀’이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남자가 남성으로서 성적 주체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별시를 아이덴티티 핵심 깊은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여성혐오’의 한 특징이라면, 그가 창녀와 성녀(어머니/조강지처)로 ‘여성’을 나누어 사고하는 ‘분리지배’를 행한다는 점 및 처녀성을 여성성으로 호색한을 남성성으로 사고하는 이중적인 성도덕을 가졌다는 점이다.<sup>22)</sup>

그는 미실의 처녀성을 깨워주는 것이 그녀를 위한 “<장족의 발전>이며 <근대화 작업>”(403쪽)이라고까지 자축하면서, “건드려 무슨 기미가 보이면 간음도 마다 않기로 하자. 아니 그때의 분위기가 시킨다면 강간도 가능하리라.”(403쪽)고 제멋대로 생각하는데, 이 사고방식이야말로 ‘성-섹슈얼리티’가 남성의 폭력성과 결부되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한다. 『장한몽』의 첫 장면 역시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다. 상배는 산마루에서 미실을 발견하고는, “남자들이 하는 일마당에 계집이 설쳐” 대다니 “에이 재수 없어, 재수 없어”(9쪽)<sup>23)</sup>하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언제 저년이나 한

22)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51~53쪽.

23) 이 부분은 개작에서는 “늦쳐녀로 알려진 그녀의 이름은 최미실. 스물 아홉 살. 그 근처 어디에 산다는 꼽고 보드라운 흙덩이. ...중략... 그는 늘 그녀를 꺼려왔다. 장정들이 힘을 겨루는 일판에 계집이 기웃거리려 괜찮을 까닭이 없었다.”(이문구, 『장

번……”(8쪽)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의 회사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공무 반 외도 반으로 출장 일정이 짜여진다”(259쪽)는 공적 세계 남성들의 클리셰에 대한 상배의 동경은 이 연장선에 놓인다. 사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당대 화이트칼라남성들의 통념이자 실제 관행일 가능성이 다분하다.<sup>24)</sup> 상배가 다소 소심하기는 하지만 ‘잘 배우고’ 평범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상배가 마길식의 거친 저돌성, 친구인 신성식의 강단있는 처세를 부러워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도덕함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세계가 인정하는 남성성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이 기준(=‘보통사람’)에 미달한다는 모멸감과 조급함이 그의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욕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배는 주체와 세계와의 거리감에서 비롯한 갈등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 그것은 ‘보통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 자신의 가족사만큼이나 기이하고 심각한 미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가능해지는데, 밑으로 태어난 남동생이 죽자 부모들이 그 원망으로 미실의 사망신고를 냈고 이후로 그녀는 아홉 살 어린 남동생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였다. 미실의 내력을 통해 상배는 자신을 되찾는 것이 곧 ‘보통사람’ 콤플렉스를 초월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이 지점이 이문구가 ‘보통의 근대’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은 옳다.<sup>25)</sup> ‘흙’의 품성을 긍정하는 삶이 곧 ‘보통’을 초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배가 ‘흙’을 통해 진정한 인식적 해방에 이르기 위한 근본주의적인 반성이나 윤리에 도달했느냐 하는 점은 서사에서는 그다지 조화롭게 드러나지 않는다.

상배는 작품 중반 무렵부터는 “그녀처럼 측은한 인생이 다시 없겠다는 동정또한 하루가 다르게 부쩍 두터워지며 은연중 깊어져 간”(400쪽)다는,

한몽』, 책세상, 1987, 11쪽)로 표현이 순화됨으로써 ‘연민’이 좀 더 부각된다.

24) 고은에 의하면 <중삼>은 종로의 거의 모든 화이트칼라들이 삼삼오오 들르는 곳이다. 각주 13)참고.

25) 오창은, 앞의 글.

미실에 대한 ‘연민’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결말에서 미실이 그러지는 방식은 ‘혐오-연민’의 착종을 보여준다. 미실은 자신이 “무식하고” “어려워서”(720쪽) 상배의 ‘보통사람론’을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이런 미실에게 상배는 또다시 성욕을 느끼면서 “넙다 덤벼들어 잣뿔고 치마폭을 건어올리고 싶”(702쪽)은 충동에 휩싸이는 것이다. 개작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고, 미실이 자신의 삶을 ‘애도’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말하는 것으로 개고된다. 개작을 통해 보건데, 미실이나 상배가 겪은 가족사의 이력이 곧 한국의 근대화에서 벌어진 비극이며<sup>26)</sup> 상배가 전쟁으로 인해 그 과정을 겪었다면 미실은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해 삶이 비현실적인 폭력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겪었다는 차이가 있다. 사실상 후자야말로 근대의 내부이자 환부인 셈이다. 그러나 초판에서 미실은 단지 ‘한’의 차원에 불박이고 마는데, 이를 통해 공적영역으로의 진입에 지속적인 좌절을 경험한 남성의 피로함과 성공하고자 하는 조급함이 강조될 뿐이다. 남성은 그 피로를 여성을 통해 풀고 성적 에너지를 발산하며 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이 ‘성-섹슈얼리티’를 통해 드러난다. 상배의 언어가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겪음으로써 『장한몽』의 미학을 헤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한편 막별이꾼인 왕순평과 초순을 통해서 ‘성-섹슈얼리티’의 ‘혐오-연민’은 계급적인 자기혐오와 착종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초순은 유한득 3형제의 막내 동생으로 큰오빠인 유한득이 부패가 덜 된 유골에서 살을 바르는 일을 맡으면서 공사장과 연관된다. 초순이네는 이북에서 백정집 안이라는 “모멸과 천시의 형벌에서 벗어나”(93쪽)기 위해 월남했으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산 50번지 판자촌에 자리잡았다. 이웃의 왕순평은 리어카 뒤밀이꾼 일을 한시적으로 맡았을 때부터 그것을 빌미로 초순이를 피고자 했으나 잘되지 않는다. 초순은 <신촌이발소>의 면도장이로 나가면서 운수회사의 ‘스페어 운전수’와의 데이트비용을 감당하느라 손님

26) 김병익, 『한에서 비극으로』, 『장한몽』, 책세상, 앞의 책, 442쪽.

들의 주머니에 손을 대는데, 운전수라는 사람은 알고 보니 한동네 때밀이  
 임이 밝혀진다. 순평은 초순이가 그와 헤어졌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관심  
 이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여 “그녀를 사랑하는 한” 포기하지 못하겠노  
 라고 상배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때 상배는, “너무 외곬로만 대들어  
 도 불리한 법이고, 계집년들의 사고방식이나 대가리, 그리고 안목이란 것  
 은 대체적이랄 평균치란 게 없고, 알고 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예외 같은  
 것들이어서, 함부로 혼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109쪽) 말해주는데, 상배  
 의 언술에 드러나는 ‘혐오’는 성적 지배욕과 관련되는 것임을 알게 한다.  
 즉 여성일반이 타자화된다기보다는 -그의 처제들은 유한계급일 뿐만 아  
 니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인텔리들로 상배를 무시한다. - ‘지배할 수  
 있는 여성’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자란 건 다 그럴까요?”

순평이는 정말 몰라서 못해 보겠다고 했다. …(중략)… 성깔 나는 대로  
 하자면 미친 척하고 훌쩍 벗겨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늘하늘한 크로버  
 무늬의 메리야스 삼각 팬츠를 입었을 것이고, 목욕도 자주 못해 아래계에선  
 퀴퀴한 냄새가 날 것이고 입에서도 군내나는 김치를 먹어 마늘냄새 비슷한  
 구취를 풍길 게 뻔한 것이었다.(109쪽)

그러나 상배에 비해 순평의 수준에서 ‘성-섹슈얼리티’란 여자의 낯은  
 속옷이나 목은 체취의 수준에서 상상되는 유치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계  
 급적인 동일시와 결합해 있다. 순평은 초순이가 자기에게 시집오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막말을 한다. “장사꾼한테 가 봤자 노점상일 터이고 월급  
 장이를 찾았다면 점원이거나 공장뜨기일 게 뻔하다”(110쪽)고 초순의 상  
 대를 알잡는 것인데, 단순한 대로 순평은 계급적 한계와 ‘성-섹슈얼리티’  
 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순평은 초순에게 크리스마스선물  
 을 주고 싶어서 한밤중에 남들 몰래 묘지로 가 시체의 머리카락을 잘라  
 다 팔아 경비를 마련할 정도로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노력했

음에도 결국 초순에게 호의를 거절당하자 순평은 욕을 하고 초순의 따귀를 때린다. 이후 순평은 서둘러 자리를 모면하는데, 이 과정에서 “병신욕 갑한다”(656쪽)는 초순의 발악을 오래 듣는다. 초순에 대한 ‘혐오-연민’은 지배욕을 좌절당한 순평에게는 ‘자기혐오’로 수렴되는 한 속성이었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상배는 결국 자기타협에 만족할 뿐 여전히 사회가 바라는 ‘공공적인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보편적인 존재란 반드시 공공적인 정체성 속에서 자신이 가진 특이성을 인정받아야만 한다<sup>27)</sup>는 점을 상기할 때, 아내가 고추달린 사내아기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산을 하는 장면은 그의 앞날을 예견해준다. 그것은 가부장의 외피를 입고 그 나머지를 우리는 괄호를 친 채 성장주의에 동조하는 길뿐이다.

### 3. 풍기문란과 ‘혐오-연민’의 성찰기제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에 대한 혐오는 대개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습적인 사고 및 계급적인 사고의 습성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풍기문란’이라는 공동체의 도덕규율과 결합하는 경우 ‘혐오’는 보다 강렬한 정동의 경계에 놓이게 된다. ‘혐오’가 규율에 의해 조장되면서 집단 폭력까지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목시의 바다』는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풍기문란이 근대화논리와 결합하여 ‘혐오’를 낳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 그것이 ‘성-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부각됨으로써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타자화되는 인물들이 역설적으로 공동체의 부도덕성을 드러내고 재해석하게 만든다는 점 때문이다.

『목시의 바다』의 중심인물인 동욱과 이상덕, 박경화는 모두 외지에서 온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이 배선생이 몰아내려는 김진봉과

27)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204쪽.

금순네와의 관계를 통해 주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설정은 『장한몽』의 방식과 유사하다. 공적사회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외지로부터 온 (배운)남성들이 겪는 심리적인 경험이 유사한 주제를 향해 있는 것이다. 이 도식에서 여성 인물인 경화가 다소 애매한데, 이 점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목시의 바다』는 윤홍길의 60년대에 벽지학교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이다.<sup>28)</sup> 개발주의시기에 벽지라는 공간은 다소 특이한 장소성을 획득하는데, ‘벽지’는 근대화로부터 소외된 국외적 장소로 표상되는 동시에 근대화를 ‘자생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장이라는 양가성을 띠게 된다.<sup>29)</sup> 『목시의 바다』에서 돌개마을은 후자에 해당하며 돌개에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배선생은 자생적인 근대화를 실천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십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배선생이 돌개마을에서 맞닥뜨린 것은 “정조관념”(113쪽)이 무너진 현실이며, “술판과 노름판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어른들 말이 젊은이들한테 먹혀들지 않”(118쪽)는 데서 오는 윤리적인 황폐함이다. 이 점은 인상적인데, 대개 벽지를 배경으로 한 서사가 전근대적인 인습이나 문맹을 근대화의 대결 항으로 겨냥하는 데 비해 『목시의 바다』는 풍기문란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시의 바다』를 ‘윤리감각의 회복’을 꾀하는 서사로 보기 어려운 점은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된 금순네와 김진봉이 앞서 말한 동육과 이상덕, 박경화 등의 연민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을사람들의 ‘혐오’에 동조하지 않은 채 이들이 왜 혐오의 대상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연민을 느낀 것이다. 이로 인해 배선생이야말로 이들과의 대결구도에 놓이는데, 사실 이 싸움의 구도는 간단치가 않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마을

28) 윤홍길, 「작가후기」, 『목시의 바다』, 문학과지성, 1978.

29)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 운동』, 푸른역사, 2009; 이정숙, 「1960년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와 근대적 시혜주체의 연민 : 벽지교사수기와 하근찬」, 『동악어문학』 64, 동악어문학회, 2015. 2.



사람들 전체의 ‘혐오’와 벌이는 싸움이자, 배선생이 구가하는 개발주의의 ‘남성성’과도 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선생은 돌개 젊은이들이 풍기문란해진 원인을 관광을 온 도회지인들의 탓으로 삼는데, 그 타락상을 유독 여성의 성적 욕망과 결부짓는다는 점은 배선생이 구가하고자 하는 ‘윤리감각’이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동시에 성적으로 지나치게 즉물적이라는 점은 여성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드러낸다.

“모두가 그놈의 관광객들 덕분이죠. 불암사가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돌개 처녀들도 동시에 개발된 셈입니다. 도회지 남녀들이 해마다 쌍쌍으로 몰려와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소위 말하는 그 개판을 치니까 순진한 시골 아이들이 거기에 훌쩍 빠지게 된 겁니다. 앞친 데 얹쳐서 방학때만 되면 농어촌을 계몽한답시고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내려와서는 허파에다 바람만 잔뜩 잡아 넣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밭일 갯일 산일에 불러다녀야 하는 자기네 신세하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입니다. 가능하다면 자기네도 그렇게 한번 사는 것같이 살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놈의 돈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입니다. 시집갈 때까지 서 말 이밥 먹는 사람은 호강팔자를 타고 난 거라고들 시샘할 정도로 또 가래가 찢어지게 없이는 돌개에서는 감히 꿈조차도 못 꿀 엄청난 소망입니다. 결국 호의호식하고 잘생긴 남자 손 잡고 놀러다니는 꿈을 포기하는 대신 가진 것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른 건 다아 불공평해도 도회지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타고난 게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죠”(117~118쪽 : 강조는 인용자)

배선생은 “희생심이나 사명감”(119쪽)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그렇게 ‘초인적’으로 간척공사를 성공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마을의 도덕을 회복하기 위해 “걸음마부터 가르치는 기분으로”(119쪽) 고향에 정착했다고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일사분란

한 통제를 구가하고자 하는 배선생의 독선적인 방식은 돌개로 정주해 온 외지사람들인 분교 교사 이상덕이나 신참으로 막 부임한 박경화 그리고 해안경비초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고상경 등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비친다.

그러나 『목시의 바다』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질서에 대한 비판적 알레고리<sup>30)</sup>이면서도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 것은 박경화뿐만 아니라 이상덕과 고상경 같은 인물들이 김진봉이나 금순네에게 갖는 ‘혐오-연민’의 감정이 개발주의가 거세한 도덕적인 치부를 들추기 때문이다. 이때 ‘도덕적인 치부’란 시대가 강요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대한 이들 외지인들의 반성까지를 포함한다. 알다시피 ‘연민’은 감정의 속성상 이 감정을 부여잡고 있는 주체 자신의 문제로써 발현이 된다. ‘연민’은 대상의 문제인 동시에 곧 ‘연민하는’ 주체의 문제이며, 『목시의 바다』는 이 역할을 특이하게도 외지에서 온 정주민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찰이 풍기문란의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김진봉을 통해 보건데, 풍기문란은 근대화 논리와 착종됨으로써 남성성의 새로운 타자를 낳는다. 김진봉은 비록 외톨이지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배선생의 개발계획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사유지를 개발지에 복속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할 수단을 갖춘 인물이다. 김진봉이 금순네와 달리 위험한 인물로 지목된 것은 그가 돌개를 벗어나 도회지로 가려는 소녀들을 “창녀나 집대부로 팔아먹는다”(136쪽)는 소문과 춘화를 젊은이들에게 판 일 등 “풍기문란이나 탈선을 조장한”(136쪽) 혐의 때문이다. 김진봉은 불법의료행위로 근방에서 꽤 명성을 얻기까지 했는데, 그동안 금순네의 낙태와 성병치료를 대가없이 맡아준 사람이기도 하다. 둘은 거리를 둔 채 살아가지만 서로 외톨이라는 처지를 이해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을 공유한다. 그러나 금순네가 마을의 토박이인 것과 달리 김진봉은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수상한 인

30) 김병익, 「사랑과 각성」, 『윤홍길』, 은애, 1979, 137~144쪽.

간에게 덧붙는 온갖 소문의 형식들은<sup>31)</sup> 사실 진위를 떠나 그를 완벽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

김진봉은 강렬한 혐오의 대상인 만큼 자기보호수단으로 강력한 남성섹슈얼리티를 구가함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혐오(‘징그러운’)의 대상으로 만든다. 아낙네들에게 둘러싸여 비난을 받게 되자 김진봉은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성기를 꺼내 아낙네들을 쫓기도 한다. 성기가 매우 크고 검은 것으로 묘사되는데, 경화는 이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다른 아낙네들처럼 달아나지 않고 김진봉과 대화를 시도한다. 그가 성적인 에너지를 강하게 풍기는 인물이라는 점은 ‘혐오’를 동물적인 남성성으로 치부하려는 ‘성-섹슈얼리티’의 감각과 결부된다. 자신이 길들인 커다란 개 두 마리를 동반하여 완벽하게 제어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별거벗은 몸으로 차력을 실행하는 등의 육체적 이미지는 이를 더욱 부추긴다. 이로 인해 ‘미친개와 이야기만 한 사람도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불문율은 돌개의 어린애들까지를 포함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따르는 불문율이 된 것이다.

이에 비해 금순네는 온 마을여자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남성들에게는 자연화한 섹슈얼리티를 지닌 존재로 치부됨으로써 연민을 자아내는 인물로 그려진다. 사실 금순네를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자연화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돌개의 남자들이다. 금순네는 돌개의 갯가에서 자신의 몸을 원하는 남자들 누구나가 범할 수 있는 장소적 존재이다. 해안 경비초소의 고동육도 금순네를 범한 남자 중 한 사람으로, 애인이 보낸

31) 김진봉은 이상한 말씨와 흉터, 오른손 집게손가락이 헤지도록 문지르는 버릇, 마을의 회의 때 자신의 팔을 불에 그을리는 자기파괴적인 과시, 언제나 자신을 호위하는 커다란 개를 동반함으로써 공포심을 조장하는 점 등이 그로테스크하게 그려진다. 성경의 구절을 열심히 외는 모습은 그를 이교도로 비취지게 하는데 그를 둘러싼 소문들은 그를 더욱 이질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가 월남에서 의무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술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소문과 어린 시절 오갈 데 없는 그의 부자가 불암사의 허드레일꾼으로 밥을 빌어먹으며 동네 사람들의 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6·25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뒤 김진봉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품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그를 완전한 이방인으로 만든다.

결별편지를 받고 지독한 자기혐오에서 벌인 것이었다. 금순네가 온 동네 남자들의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이라는 점은 마을 누구나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금순네는 자신을 향한 멸시를 의식하면서도 지독한 운명적 불행과 가난의 고단함으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살아간다. 금순네는 고독을 견디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데, 껏일이 끝나고 나면 아낙네들의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뺄 한가운데로 들어가 자살시도를 벌이는 것이다. 붉은 나문재와 저녁놀을 배경으로 손바닥에 문질러진 피처럼 붉은 나문재 포과를 흐르게 하는 채로 소용돌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들어가는 장면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되는데, 여성을 제도나 현실로부터 분리하여 순수한 ‘자연화’의 대상으로 재현하는 것은 -방영웅의 『분례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성’을 가장 먼 거리로 타자화시키는 방법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성을 탈각시킴으로써 멸시와 혐오를 사회성의 프레임에서 지우(게 하)기 때문이다. 금순네의 깊은 고독을 이해하고 있는 동옥은 이런 그녀에게 혐오와 동시에 누구보다도 강한 연민을 갖는데, 그녀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불행과 가난, 그로 인한 삶의 짐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에 이르기까지 고동옥은 금순네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이 제시된다.

『목시의 바다』에서 이상덕과 고상경은 둘 다 사회에서 갖게 된 패배의 식으로 벽지를 자원해왔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 이유를 고통스럽게 탐색하는 데 소설의 한 축이 놓인다. 동옥은 데모에 참가했다가 체적을 당하고 입영 통지서를 받자 가난한 가족들의 짐을 덜기 위해 자폭적으로 전경대에 자원했을 뿐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인물로, 무장공비가 출몰한 이후 돌개의 해안경비대로 배치되었다. 이상덕 역시 도시학교에서 좌천을 거듭하다가 벽지학교로 부임해 옴으로써 실패를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동옥에게 현실에 대한 대결의지로써 치기가 남아 있는 반면 이상덕은 의지를 결여하고 타협적으로 살아가려 한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패배감을 안긴 진입장벽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벽지를 택한 것에 대해 모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여기 비하면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천식을 달래기 위해 벽지로 자원해 온 경화는 의욕적인 인간형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박경화는 이상덕이나 고동욱과 달리 여성으로서 남성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 배선생의 경고를 무시하고 김진봉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경화에게도 ‘전염병’에 옮은 사람을 대하듯 혐오의 시선을 보내고 급기야 동맹 휴학을 일으킨 것이다. 사실 박경화가 김진봉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서 ‘혐오’-> ‘혐오-연민’ ->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해가도록 한 것은 여성 인물에게 ‘희생’- 모성성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게 만드는 서사적 한계로 볼 수 있다. 경화는 규율적 근대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모종의 윤리적인 공동체를 기도하면서 가장 큰 갈등의 복판으로 뛰어든 인물임에도, ‘모성성’으로써 그녀의 대자적인 의지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김진봉의 편에 섰으로써 김진봉은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고 마을에 협력할 것을 결심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쇠스랑과 낫을 거머쥔 마을 사람들의 횃불 몰이로 김진봉은 결국 폭포절벽에서 죽음을 맞는다. 이로써 경화의 노력은 무의로 끝난다.

김진봉의 죽음으로 내적인 변화를 얻은 인물은 이상덕인데, 이 죽음이 집단 타살이라고 깨닫는 순간 이상덕은 의지박약했던 자신을 버리고 죽음의 진상을 고발하기 위해 옹포로 떠날 결심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상덕은 배선생에게 맞서는 박경화를 보며 자신이 배선생과 맞섰던 옛날을 센티멘탈리즘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비록 자신도 경화이상으로 “배선생이 펼치는 총진군의 드라마 속엔 정작 있어야 할 인간이 빠져” 있고 “돌격을 명령하는 것도 금속성 나팔”(113쪽)이라고 따지긴 했으나, 사실 상덕은 배선생의 기세로부터 과거 군대에 있을 때 화재 현장을 향해 뛰벌뛰벌 걸어들어갔던 대령의 술선수범을 떠올리며 그의 ‘신념’에 자신의 ‘즉흥’이 부딪히고 있다는 자의식에 눌렸던 것이다. 자신은 “삼십대의 몸뚱이 위에 얹혀진 십대의 대갈통”(126쪽)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상덕은 이 ‘센티멘탈’을 탈각할

계기를 금순네 및 김진봉을 통해 맞이한다. 그런 점에서는 『목시의 바다』는 일종의 성장소설과도 같은 플롯을 지닌다. ‘사회화’가 ‘성장’이라면 결국 ‘센터멘탈’을 탈각하는 것이 개발주의가 요구하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순네는 이미 모든 비극을 예감하고 자살을 실행할 결심으로 바다로 나가 있었는데, 고동욱은 밤경비중 과녁에 들어 온 그녀를 오발로 쏘아 쓰러뜨리는 우를 범한다. 평소에도 종종 금순네를 과녁 안에 놓아보던 고동욱이 방아쇠를 당긴 것은 실상 금순네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타살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금순네의 육체적 오욕을 벗김으로써 그녀는 완전한 연민의 기표로 전환되는 셈이다. 고동욱은 부상당한 금순네를 옹포로 떠메고 가면서 자신이 금순네를 책임질 것을 결심하는데, 이것이 그에게 새로운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써 의지를 샘솟게 만든다는 것이 최종 결말이다. 그러나 정작 금순네는 자발적인 선택의 여지없이 식물성의 수동상태에서 재생의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 한계이다.

금순네 쏘았다고 깨닫는 순간에 난 내가 결국 돌개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어. 난 이제부터 돌개 사람이야. 금순네 덕분에 소속이 분명해졌다 이거야. 지금까지진 그저 모든 게 다 괴롭고 시들기만 했어. 아무 데도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괴로움이 생긴다는 걸 지금에야 알게 되었지. 난 돌개 사람이야. 돌개 사람이니까 반드시 돌개로 돌아와야만 해. 돌개 주민이니까 난 이제 돌개를 껴안을 수도 있고 침을 뱉을 수도 있어. 그럴 자격이 있다구. (325~326쪽 : 강조는 인용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삶의 의지를 회복하게 되는 결말은 ‘혐오-연민’의 대상들에 대한 자기 성찰적인 이입을 통해 ‘혐오’를 탈각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스스로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이것은 벽지라는 장소성의 힘이기도 하다. 국외자의 방관을 용인했다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도록 이끔으로써 ‘사회적 자아’를 ‘회복’하게 만드는 일시성을 ‘벽지’라는 폐쇄적 공간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소에 계몽-‘벽지학교’-과 방공-‘무장공비’를 막는다-을 겹쳐놓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로써 ‘성장’은 이상덕(계몽)과 고동욱(방공)에게서만 초점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 점은 공동체의 ‘윤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경화를 희생양으로 만든 것과 더불어 이 작품의 치부라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상 논의를 마치는 시점에서, 과연 개발주의시기를 대표하는 감정이 ‘혐오’였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문둥이와 고아, 창녀, 룸펜프롤레타리아, 심지어 공장노동자들조차 자신들을 비하하는 언어를 갖고 있었다면 분명 ‘혐오’는 이 시기를 횡단한 감정임에 틀림없다. 물론 ‘혐오’가 개발주의를 포괄하는 감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론에서 짚었듯, 오늘날처럼 ‘미러링’의 언어를 생산하게 만드는 대항의 정동 역시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70년대가 타자화 전략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멸시’로 표현되는 ‘혐오’가 단지 일방향적으로 흘렀던 감정일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항의 ‘언어’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이지 심리적 대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대항의 ‘언어’는 間-장르 간에 벌어진 것일 확률이 높다. ‘식모-여공-창녀’순의 허구적 서사의 도식을 부정하는 여공 자신들의 담론처럼 말이다. ‘수동적인’ 존재들로부터 탄생하는 ‘언어’를 구조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 글은 1970년대의 ‘성-섹슈얼리티’에 구현된 감정이 ‘연민’과 ‘혐오’ 각각이 아니라 ‘혐오-연민’이라는 복합감정임을 논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혐오하면서 연민하는’ 것은 감정적 주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라기 보다는 그 대상(물)의 속성을 지칭하는 사회적 언어임을 알 수 있었다. ‘남성성’안에서 이 감정들의 객체가 된 ‘여성’이 철저히 도구적이고 수동

적인 대상물로서 존재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혐오-연민’은 단순히 ‘혐오’라는 반사회적 감정에 도덕감정인 ‘연민’이 희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연민’이 진정한 도덕감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사회’내부의 감정적 집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성’, 특히 ‘성-섹슈얼리티’ 차원에서 당대 여성이 사고된 방식은 오직 대상을 향한 주체의 경험적 지평만이 이 감정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장한몽』에서 상배의 언어가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겪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장한몽』은 유동하는 텍스트임에 틀림없지만, ‘흙’을 향한 성찰을 목적으로 시작한 여정임에도 틀림없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흙’의 세계를 추구하는 언어와 ‘성-섹슈얼리티’가 드러난 언어 사이의 거대한 불협화음은 곧 당대 남성성이 처한 심리적인 동요를 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미학적 경계 혹은 동요는 『목시의 바다』에서 공적영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남성들의 패배주의와 센터멘털리즘을 연상하게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감정들을 극복하고 성장에 도달하는데, 이들의 성장이 배선생이 구가하는 개발주의 ‘남성성’의 패배를 뜻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들은 개인들을 타자화하는 ‘혐오’라는 집단적인 배제와 폭력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윤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한몽』이 공적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는 고통을 개인차원의 성찰을 통해 해결하려는 과정에 머문다면 『목시의 바다』는 공적영역으로의 진입장벽을 통과하지 못한 데서 오는 패배의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같지만 공동체의 문제로 프레임을 옮김으로써 ‘윤리’의 지평을 그리고 있다. ‘혐오’나 ‘연민’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존속되는 감정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작품을 통해 ‘개발주의서사’가 피하는 ‘성장’이 주로 ‘남성성’을 향해 초점화되고 있음은 두 작품의 공통적인 한계이다.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연민’이 도달한 윤리적 한계는 70년대 초반과 7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이러한 공과를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문구, 『장한몽』, 삼성출판사, 1973.  
이문구, 『장한몽』, 책세상, 1987.  
윤홍길, 「작가후기」, 『목시의 바다』, 문학과지성, 1978.

### 2. 국내논저

- 강인숙, 「탈 통념시대-풍미하는 여성덜시사상」, 『크리스찬아카데미 총서7』, 크리스찬아카데미, 삼성출판사, 1975, 223~231쪽.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글로리아 스타이넴 여사」, 『크리스찬아카데미 총서7』, 크리스찬아카데미, 삼성출판사, 1975, 423~429쪽.  
기사, 「렌즈에 잡힌 서울의 흠-창녀」, 『경향신문』, 1968. 5. 30. 4쪽.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 운동』, 푸른역사, 2009, 243~251쪽.  
손정목,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I』, 한울, 2010, 195~196쪽.  
이재경, 『국가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한울아카데미, 2010, 17쪽.

### 3. 외국논저

- 수잔 리돈, 「섹스냐 인간이나」, 『크리스찬아카데미 총서7』, 크리스찬아카데미, 삼성출판사, 1975, 232~242쪽.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13, 222쪽.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204쪽.  
신시아 인로, 김엘리·오미영 역,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선이 되었을까』, 바다출판사, 2015, 64쪽.  
사르트르, 정명환 역,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80쪽.  
에티엔 발리바르, 서관모·최원 역, 『대중들의 공포』, 비, 2007, 138쪽.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5, 12쪽, 51~53쪽, 289~290쪽, 296쪽.

Lise Fortier, 「불임 및 수태조절법규에 대한 태도」, 『크리스찬아카데미 총서7』, 크리스찬아카데미, 삼성출판사, 1975, 243~258쪽.

Nancy Press Hawley, 「독신과 결혼을 통해 본 여성의 인간관계」, 『크리스찬아카데미 총서7』, 크리스찬아카데미, 삼성출판사, 1975, 281~311쪽.

#### 4. 논문

김병익, 「부정적 세계관과 문학적 조형」,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민음사, 1974, 345~359쪽.

김병익, 「사랑과 각성」, 『윤홍길』, 은애, 1979, 137~144쪽.

김병익, 「한에서 비극으로」, 『장한몽』, 책세상, 1987, 437~443쪽.

김중철, 「작가의 진실성과 문학적 감동」, 『한국문학의 현단계』, 창작과비평, 1982, 98~121쪽.

박정애, 「군사주의와 개발주의하의 여성문학-폐허에서의 생존전략」, 『우리문학연구』 15, 우리문학연구회, 2002, 12, 285~305쪽.

오창은, 「1960년대 도시문화와 폐허 이미지-이문구의 『장한몽』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 2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2, 269~301쪽.

이정숙, 「1960년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와 근대적 시혜주체의 연민 : 벽지 교사수기와 하근찬」, 『동악어문학』 64, 동악어문학회, 2015, 2, 137~168쪽.

임경순, 「내면화된 폭력과 서사의 분열: 이문구의 『장한몽』」, 『상허학보』 25, 2009, 2, 309~348쪽.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5, 10~230쪽.

## Abstract

### “Hatred-Pity” for “Gender-Sexuality” in the “Developmentalist Epics”

- Focused on *Janghanmong* by Lee, Mun-Gu and *Sea of Revelation* by Yun, Heung-Gil

Lee, Jeong-Sook

This piece of writing aims to discover an implication of “misogyny” in a way of viewing from a gender-sexuality perspective masculinity of an age, which was considered major population of government sustaining the two axes called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during a developmentalist era. In light of understanding that developmentalist masculinity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the patriarchal state regime, “misogyny” is related to frustration, humiliation and resulting self-hatred of masculinity that attempted to break into a developmentalist public sphere. “Hatred-pity” was born from this dynamics.

*Janghanmong* reveals that the public sphere made up of social members follows a developmentalism ideology frame, working as a space giving birth to its all harmful effects. In the space man(author)’s sexual expression remains genderwise a significantly restrictive level. And woman, as a role player of releasing fatigue caused by an effort that “citizen-man” (white-collar) tries to enter the public sphere, is completely otherized; “hatred-pity” for “gender-sexuality” simultaneously implies both limitation of and possibility of reflection on developmentalist masculinity.

*Sea of Revelation* deals with “gender-sexuality” in a demoralization frame, showing that “hatred-pity” works as an

emotion to expose moral weak points castrated by developmentalism. Demoralization is mixed with modernization logic, which leads to a new otherized being of not only woman, but also masculinity. *Sea of Revelation* seems like a step forward than *Janghanmong* in a sense that the process of eliminating “hatred” from “hatred-pity” sentiment for the otherized beings is seen as reflection and growth that enable men, who failed to enter the public sphere, to overcome defeatism and sentimentalism. However, it is revealed that gender-restrictive idea was rather habitualized using a little more tender words in a way that woman is otherized to the farthest from the society by naturalizing “(female) gender-sexuality” and reproduced by a myth so called “maternal love.” In the end, despite a time discrepancy between the early and the late of 1970s, the two works share a common point that the growth intended by the “developmentalist epics” is emphasized mainly directed for masculinity.

Key words : Misogyny, Hatred-Pity, Affect, Developmentalist Epics, Gender-Sexuality, Masculinity, Lee Mun-Gu's *Jang Han Mong*, Yun Heung-Gil's *Sea of Revelation*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